



Hana

[하나]

*A Mixed-Method Study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of The Korean Church of New England*

Findings, trends, reasoning, clarity for the Korean Church of New England



Hana

[하나]

*A Mixed-Method Study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of The Korean Church of New England*

"WHY 하나?"

연구자: 전제인 전도사

ARISE는 지난 28-29년 동안 뉴잉글랜드 한인교회의 2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으로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ARISE를 인도하는 동안 저는 항상 한인 교회의 1세와 2세가 실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 경험 뿐만 아니라 교인분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배우고 싶었습니다. "HANA"는 이 마음으로 뉴잉글랜드 한인 교회를 위해 나온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하나 프로젝트의 핵심 질문은 "뉴 잉글랜드 한인교회의 1세대와 2세대의 상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뉴 잉글랜드 한인 교회 역사, 교인 설문, 그리고 1세대와 2세를 향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연구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우리는 스물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두 세대의 목회자와 교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 교회 역사서를 통해 뉴 잉글랜드 한인 교회의 역사와 수십년 동안 1세대와 2세대의 관계에 대한 역사들 파헤치고 정리했습니다. 목표는 첫째, 1세대와 차세대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하고, 둘째, 현재 교회의 상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두 세대가 직접 어떻게 한국 교회를 앞으로 이끌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이 짧은 연구 결과 보고서는 가을에 출시 될 더 광범위한 버전의 작은 미리보기입니다. 결과들 때문에 쉽게 읽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들에게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고 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다른 세대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볼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인교회 역사의 타임라인

1930

Harvard, MIT, BU를 다니는 유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1952

맥카렌-월터 이민법 적용 후 한인 유학생들이 이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몇몇의 한인들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1953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인을 비롯하여 천주교 및 불교 신자와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모여서 다른 교단들을 걸쳐 첫 한인 예배(보스톤 한인교회 창립예배)가 개최됩니다.

1960s

당시의 어려웠던 한국 사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학생들, 약 94%가 귀국하지 못한 채 미국에 남습니다. 한인교회가 이민자들의 사회적 모임의 장소와 안식처가 됩니다.

1970s

성요한교회, 북부보스톤교회, 보스톤 장로교회 등등 한인교회들이 창립됩니다.

1980s

교회에서 영어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회중이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다가가면서 영어 사역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991-1993

뉴잉글랜드 지역의 주요 교회들에 걸친 영어 예배는 많은 참석과 회중들의 뚜렷한 성장으로 시작됩니다.

1994

2세대 사역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떠나기 시작하면서 몇몇의 영어권 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인교회에 유스를 섬기고 있는 몇몇 대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여름수련회를 주최하면서 ARISE가 설립됩니다.

1998

영어권 사역이 한인교회를 떠나고 따로 교회를 개척하는 기록은 이 해 부터 시작됩니다. 익명으로 남겨진 이 교회는 독립한지 1년을 지나지 못해 문을 닫게 됩니다.

2010-2013

일부 교회는 예배를 위해 여러 세대들을 결합하고 줄어드는 영어권 사역을 완화하기 위해 영어 공동체 그룹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2014

규모가 극도로 줄은 영어권 사역들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아닌 가정들로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영어 사역을 다시 개척하려는 노력을 되살리지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2000s

영어권 사역들이 자율성을 추구하고 한인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몇몇의 영어권 사역들은 보스톤 지역으로 옮깁니다.

2000s

미국 동양인 교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들이 보스톤 지역에 세워 집니다.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로부터 보스톤 지역에 보스톤 온누리 교회가 세워 집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소속감

한인 이민교회에 여러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1세대, 수동적인 차세대

설 문지에 "현재 이 교회를 한 교우로 다니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뉴잉글랜드 한인교회 대부분은 교인이나 만약 세례받지 않았다면 정규 참가자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71%는 이미 세례 받은 정식 교인(member) 이거나 교인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9%는 정식교인이 아니지만 정기적인 참가자라고 답했습니다. 참여자들의 이 응답들은 연령 그룹, 사용하는 언어 및 세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대다수에 응답에 반면에 20%은 실제로는 정기적인 참가자나 교인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소수를 짚은 응답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92%는 2세대와 1.5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교회를 뒷문으로 나가서 떠나는 한국교회 기독교 청소년과 청년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정착한 2세대들의 교회 참여가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2세 참가자들 중 48%는 2년 전에 비해 교회에 참여를 덜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Fig. 1**

설문 참여자 중 정규 참가자 또는 세례 받은 교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20% 중에 92%는 1.5나 2세대 출신이었습니다.

연구한 결과 한인교회의 2세대 참여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문에 참여한 2세대 중 39%는 현재 교회에 꾸준히나 더 활발히 참여한다고 표현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가 줄었다는 것과 교회를 떠나는것은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감소되고 혼란스러운 소속감

민음을 위해 교회에 가는 만큼, 한 공동체에 소속하기 위해서도 교회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교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교회는 많은 1세대 한인동포들이 마주하는 억압과 고된 삶의 현장에서 서로서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며 힘을 입는 하나의 안식처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은 설문 조사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1세대 참여자 중 67%는 한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1세대와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2세대 참여자들 중 66%는 공동체안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줄어들고 있거나 자신이 속한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16%는 한인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지금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5 세대 중 81%는 소속감이 줄어들고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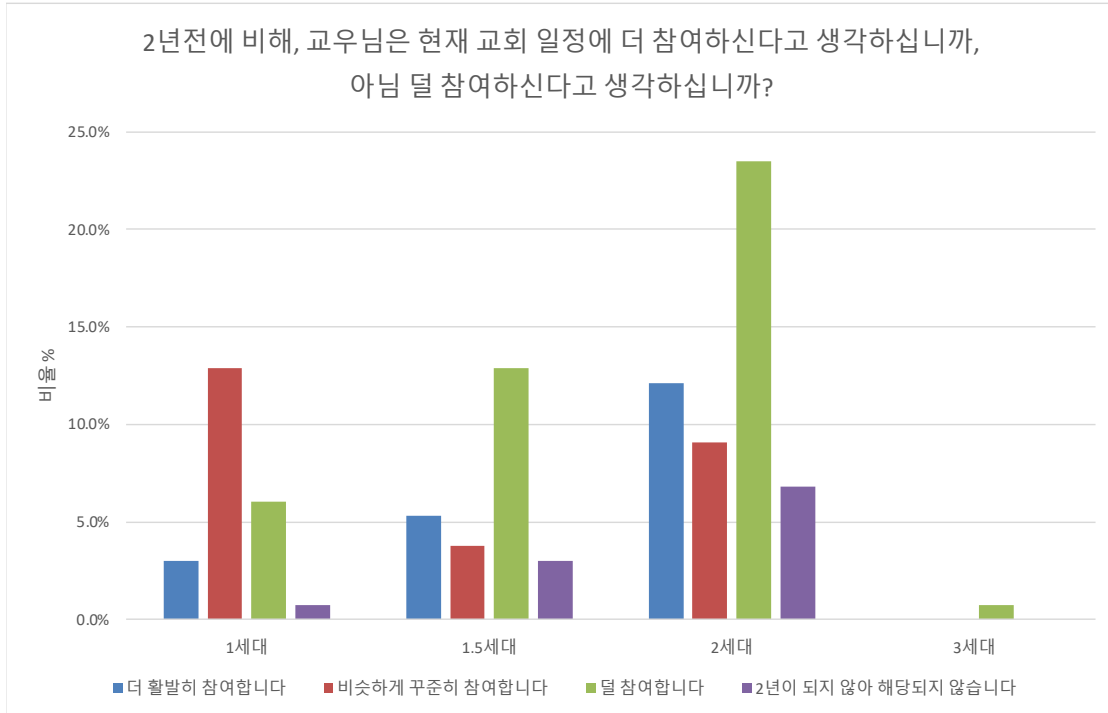
물론 모든 2세는 아닙니다. 많은 2세와 1.5 세대 분들이 아직 한인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2세대 참여자들 중 66%와 1.5세대 응답자들 중 81%는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Fig. 2

인터뷰를 하면서 각 세대들에게 소속감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2세대 중 한 분은 소속감을 '자신이 자신으로 받아 들여질 때'로 답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1세대 교인이 챙겨주실때 가장 소속감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느끼는 소속감과 내적 소속감 사이의 불협화음을 느낀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분은 "이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말했지만 나는 내가 여기에 속한다고 정할 내적인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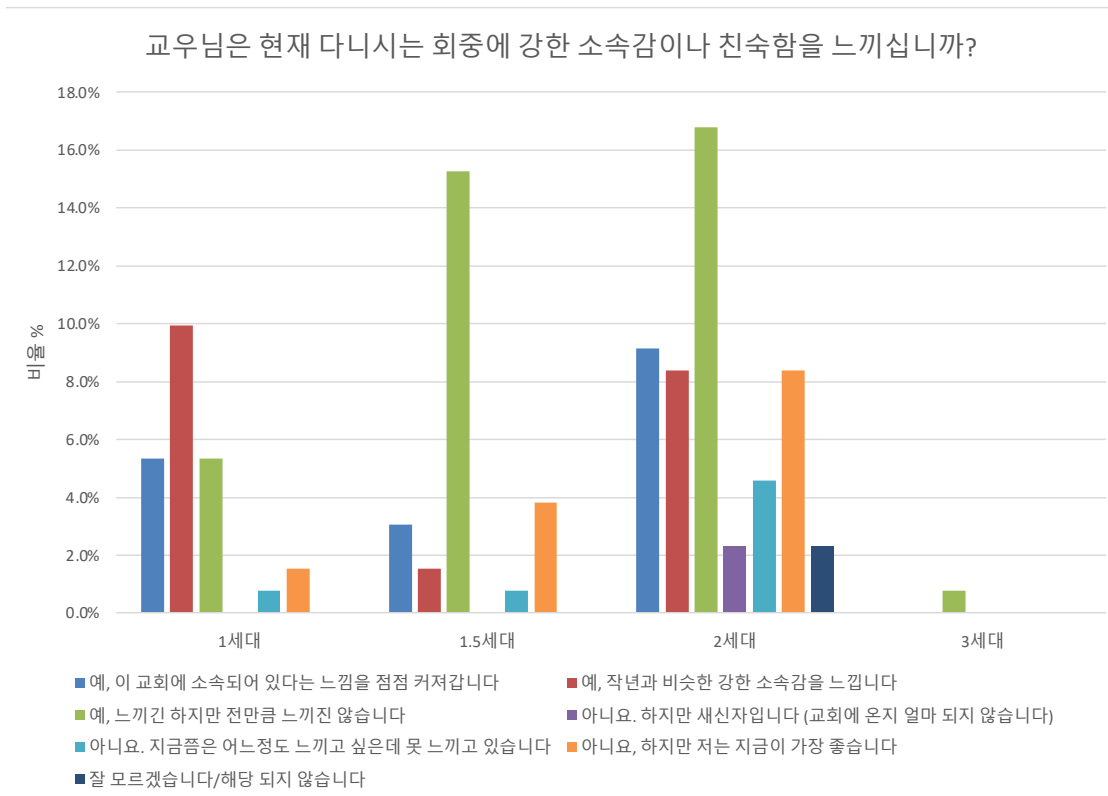
세대별 지난 2년간 참여

Fig. 1



세대별 소속감

Fig. 2



비전에 대한 지식과 변화에 대한 확신

젊은 세대는 한인교회의 방향과 변화의 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전과 변화에 대한 확신

늘 략게도 “이 회중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 모든 세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세대 참여자들 중 60%는 교회 회중이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 할 준비가 되어있음에 불확실하거나 반대한다고 답하고 1.5세대 참여자들 중 61%, 2세대 참여자들 중 68%이 교회 회중이 새로운 것을 시도 할 준비가 되어있음에 불확실하거나 모른다고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들 마다 교회 회중이 새로운 것을 시도 할 준비가 되어있음에 대한 반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1세대 참여자들 중에는 13%만이 교회가 새로운 것을 시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2세대 참여자들 중에는 37%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두 세대의 참여자들 중 비슷하게 한 12% 정도가 교회가 새로운 것을 시도 할 준비가 되어있음에 매우 반대했습니다. **Fig. 4**

인터뷰 중 교회에 비전과 변화에 관한 질문에

1세대 참여자들 중 60%, 1.5세대 참여자들 중 61%, 그리고 2세대 참여자들 중 68%이 교회 회중이 새로운 것을 시도 할 준비가 되어있음에 불확실하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1.5세대와 2세대 참여자들은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공간, 특히 차세대를 위한 공간이 없어서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1.5세, 2세분들이 그들이 자란 교회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느끼지만, 자신들이 자란 교회에 그들을 위한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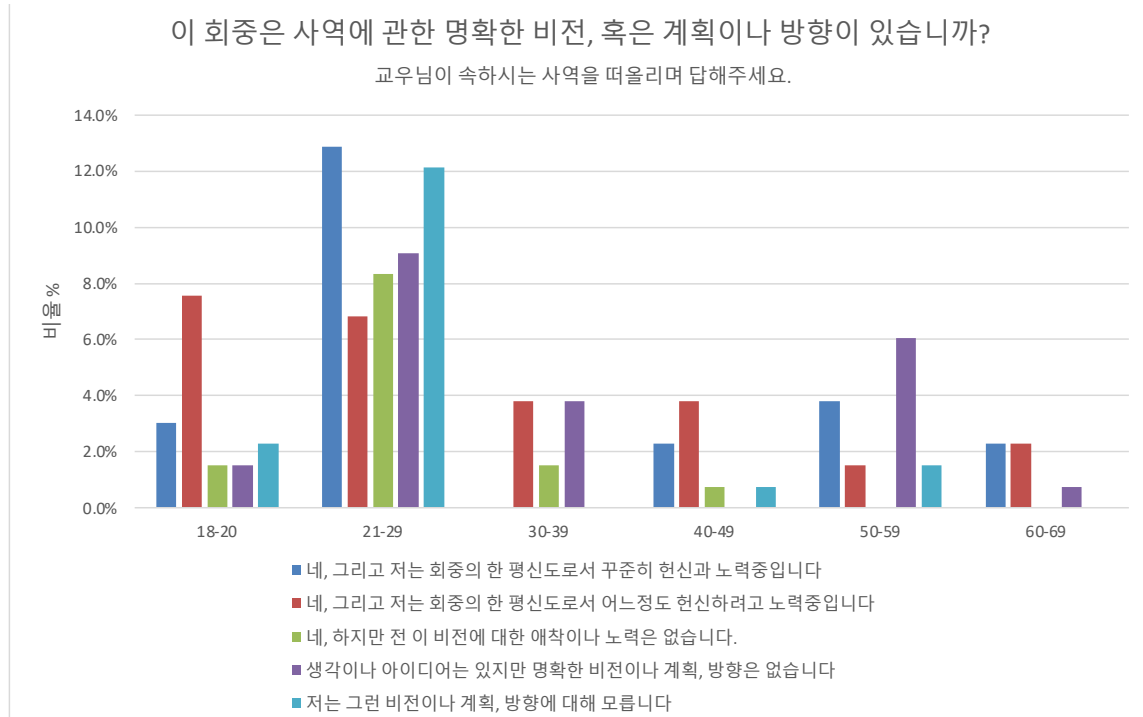
누 구도 뉴잉글랜드 한인교회들의 미래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설문을 통해 교인들의 답변들을 보았을 때 회중들이 교회 미래의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참여자들 중 38%가 교회에 구체적인 방향이 없거나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명확한 방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참여자들의 비율은 모든 연령대를 가로질러 높습니다. 40세 이상의 참여자들 중에는 35%가 40세 미만의 참여자들 중에는 39%가 교회에 명확한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교회에 비전과 방향을 모른다고 답한 참여자들 중 86%는 30세 미만이었으므로 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교회의 방향에 대해 더한 불확실함을 표출했습니다. **Fig. 3**

교회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방향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한인 교회의 연령이 40세 이상 중 68%가 한인 교회의 방향에 대한 헌신을 표명한 반면, 40세 미만 성인 중에는 45%만이 헌신을 표명했습니다. 21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들 중 60%와 30세에서 39세 사이의 성인들 중 58%는 한인 교회 전체의 방향에 대해 헌신적이지 않거나 한인 교회 전체의 방향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Fig. 3**

비록 2세대가 교회 회중이 변화를 일으키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 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표현했지만, 반대로 40세 미만의 교인들 55%는 한인교회에 대한 헌신을 표명했습니다.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2세는 아직 한인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한인교회의 일부로서 헌신하고 있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한편으로 뉴잉글랜드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의 변화는 차세대들을 교회의 방향과 비전에 포함시킴으로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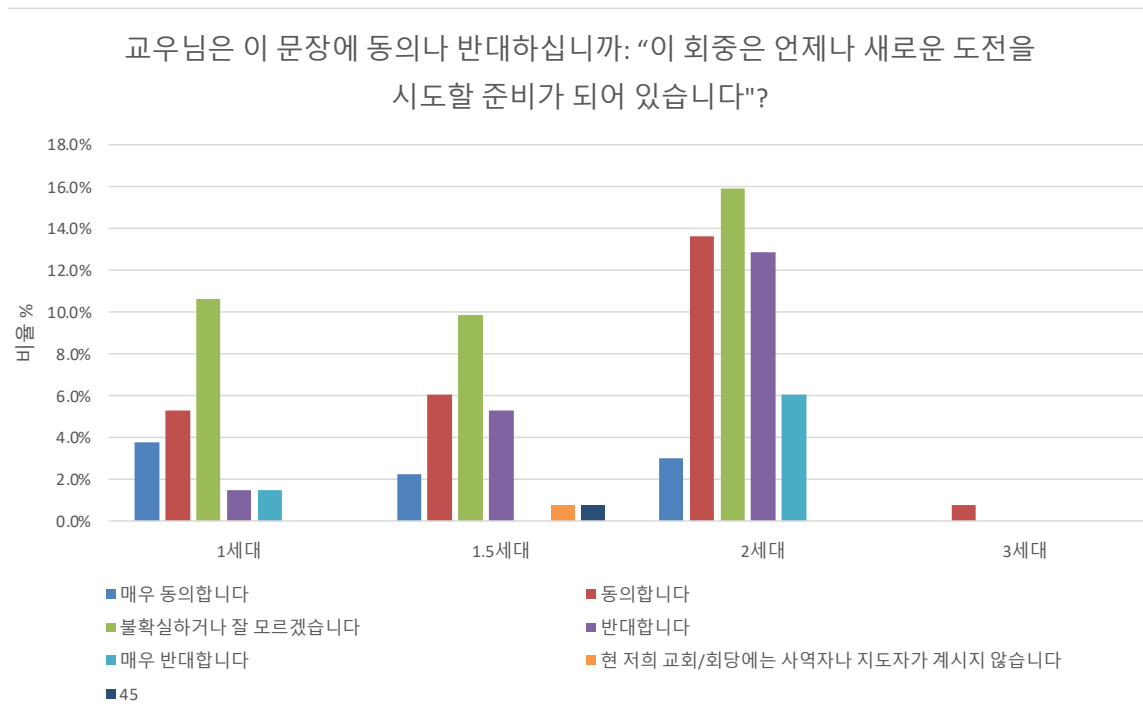
나이의별 교회의 방향을 향한 헌신과 지식

Fig. 3



세대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Fig. 4



한옥권 사역과 영어권 사역의 관계

한옥권 사역과 영어권 사역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이 연구는 한옥권 회중과 영어권 회중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옥권 회중과 영어권 회중의 관계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회중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지, 두 사역이 함께 하는 교회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생활에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회중 대부분은 영어권 성도들을 알고 지냅니다” 라는 문장에, 전체 참여자들 중 48%는 대부분의 한옥권 교인들이 영어권 교인들을 서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옥권 교인들과 영어권 교인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지 모른다고 답한 참여자들 중 70%는 40세 미만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40세 이상의 참여자들 중 67%도 한국어권 교인들과 영어권 교인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지 모르거나 서로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참여자 중 66%가 한옥권 교인들이 영어권 교인들을 서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Fig. 5**

한옥권 교인들과 영어권 교인들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40세 미만의 참여자들 중에는 42%가, 40세 이상 참여자들 중에는 38%가 서로의 관계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 참여자들 중 53%는 한옥권 교인들과 영어권 교인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옥권 교인들과 영어권 교인들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40세 미만의 참여자들 중에는 42%가, 그리고 40세 이상 참여자들 중에는 38%가 서로의 관계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 참여자들 중 53%는 한옥권 교인들과 영어권 교인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옥권 교인들과 영어권 교인들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참여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 중 47%는 한옥권 교인들과 영어권 교인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참여자들 중 47%가 서로의 관계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한옥권 회중과 영어권 회중이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문장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 답들만으로 현재 각 회중 관계가 건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Fig. 6**

따라서 “우리 회중은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는 문장에 동의를 물었을 때 1세대 중 77%가 차세대 사역을 우선 순위로 여긴다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차세대 중에는 42%만 1세대들이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중 59%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우선시 하지 않거나 우선시 하는지 모른다고 표현했습니다. **Fig. 7** 그리고 “교우님의 교회는 영어권 청년과 장년부를 갖고 지속하는 목적을 위해 꾸준히 노력과 헌신중입니까?” 라는 질문에 1세대 중에는 47%가 영어권 청년과 장년부를 갖고 지속하는 목적을 위해 꾸준히 명확한 노력과 헌신중이라고 답했지만 차세대 중에는 32%만 이 동의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68%는 교회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에 대해 모르거나 교회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공동체 생활안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그들의 교회가 차세대 회중을 우선시한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했습니다. **Fig. 8**

이 연구 결과를 통해 1세대가 가진 차세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과 차세대가 느끼는 1세대의 관심과 사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걸 돋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세대가 차세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많은 1세대 부모들과 목회자들이 그들의 세대가 젊은 세대를 더 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인 교회 내에서 세대 간 관계를 시작하는게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알아가고 나누며 세대간의 관계들이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권 회중과 영어권 회중의 관계

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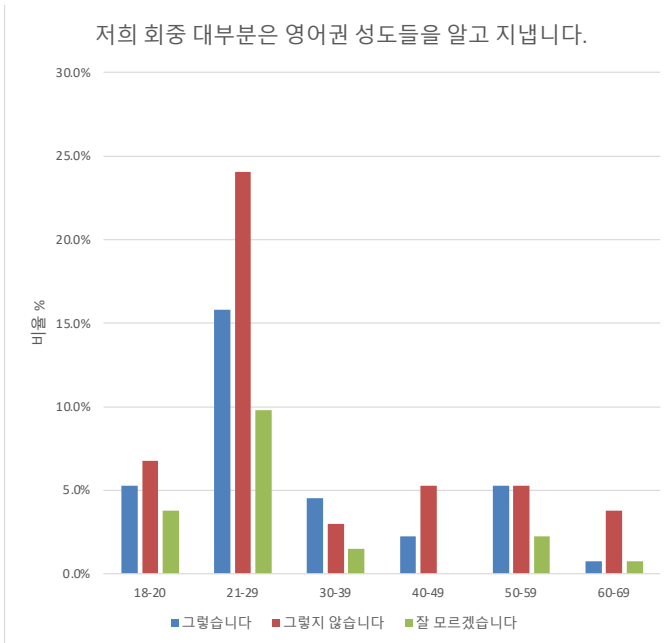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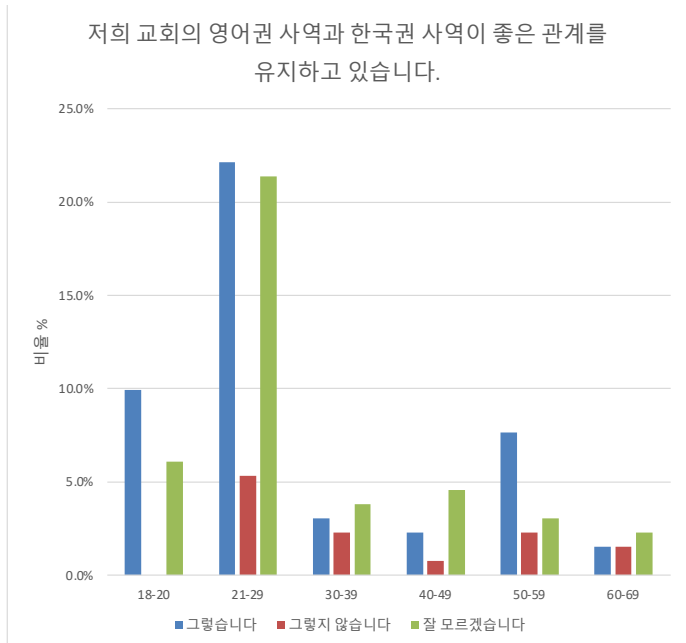


Fig. 6



교회일정중 차세대 우선순위

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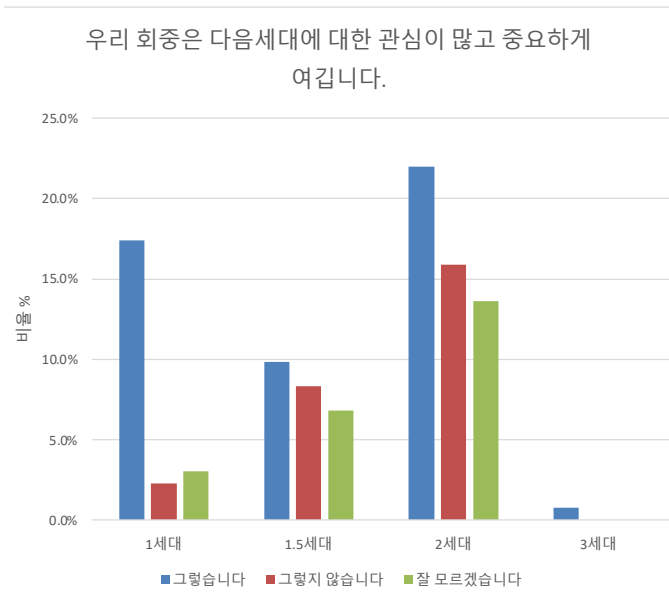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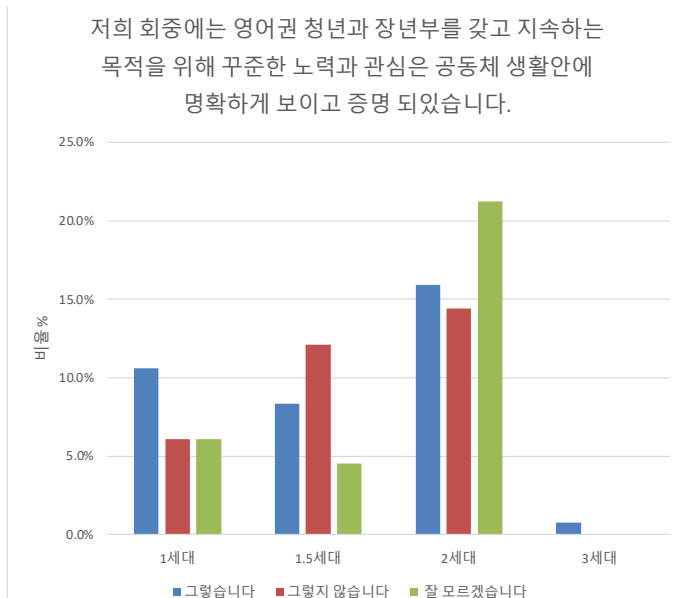


Fig. 8



세대 간의 오해

뉴잉글랜드 한인교회의 2세대와 1세대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대화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 세대 간의 쌓인 오해를 조금씩 풀고자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두 세대를 상대로 진행이 됐었고, 인터뷰 중 교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물었습니다. 대상자분들의 한국 교회 경험에 대해 듣게 되었고, ‘제자도,’ ‘멘토링,’ 그리고 ‘소속감’ 같은 단어들에 대해 대상자분의 생각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다른 세대가 본인의 세대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에서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세 부모님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1세 분들은 젊은 2세대가 1세에 대한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일부러 아픔을 주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입장을 호소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세대는 본인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에게서 힐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낯선 미국땅에서 2세를 양육시켰다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1세대는 "unlearn and relearn"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고, 한인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 격을 어려움 중 이 관점의 차이가 난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1세대가 한국 전쟁에서 나라가 함께 겪었던 분단, 전쟁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2세대가 1세대를 떠나는 상황에는 이러한 트라우마들을 건드리거나 자극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2세대가 1세대와 함께 공동체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2세대에게 어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로 하는 사과, 그리고 미안하다는 표시의 무게입니다. 영어로 "I'm sorry"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상황에 응용됩니다. 이 단어는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사과하는 마음으로 쓰여질 수 있으며, 다른 지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에도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I'm sorry"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일에도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사과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랑하는 자녀분들을 위해 살아온 1세대의 사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1세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차세대 인터뷰 대상자들은 1세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정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세의 노력에 대한 공경과 감사를 표했지만, 교회가 2세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대 간의 상호 이해와 지속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열린 의사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한 2세 여성은 깊은 걱정을 호소했습니다: "1세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지만,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훨씬 더 오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뉴 잉글랜드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녀는 본인의 미래 자녀들과 함께 한국 교회를 갈 수 있기를 원하지만, 1세대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 빨리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

한 세대는 다시 한 번 함께 모여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기 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는 단지 교회에 있기 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는 대화와 교회의 미래 방향에 포함되기 를 원합니다. 둘 다 다른 세대를 깊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소속감과 멘토링과 같은 단어에 대한 1세와 2세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인간이 공유하는 많은 지식을 표현되는 단어와 분리하는 것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어는 인간 사회와 공동체에게 생각을 형성하고 표현을 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생각을 하는 틀이 됩니다. 소속감과 멘토링과 같은 핵심 용어에 대한 언어와 개념이 영어에는 있지만 한국어에 없다면, 1세대는 다음 세대가 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각 세대가 이러한 핵심 용어들을 해석하는 차이를 한인교회가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기 위해 다음 페이지에 분석했습니다.

1 Neil Mercer, Words and Minds (London: Routledge, 2000), 17.

BELONGING

한국어로 소속감, 혹은 소속된다는 단어는 더 큰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 단어는 정부 또는 회사의 일원일 때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계성과는 덜 상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한국인들은 교회에 깊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미국 사회는 대체로 계약적이지만 한국 문화는 언약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소속감을 느낄때에 따르는 행위는 책임과 참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영어로 "소속"하다는 말은 '한 그룹의 구성원이 되어 거기에 어울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적인 개념으로 소속감을 해석하면, 누군가가 어떤 공동체에 속할 때는 특권이자 힘이 됩니다. 자신의 관계적인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2세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동시에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2세대가 생각하는 소속감에 관한 개념도 한국적인 개념과 미국적인 개념을 결들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거의 모든 차세대 인턴류 대상자들은 자신은 교회에 안전하게 속하기 위해 직책을 갖고 봉사 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행동들은 한국 교회에 속하도록 돕지 못했습니다.

COMMITMENT

"Commitment"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때에는 헌신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이 말에는 헌신의 대상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뜻을 모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Commitment"은 '약속'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 더 적절한 단어가 대신 "헌신" 또는 "희생"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어의 개념은 한국 문화에서 특히 공동체적으로 존재합니다. 모두가 공동체의 일부이며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입니다.

영어로 "Commitment"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한인 동포들은 "Commitment"의 미국적인 해석에 훨씬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차세대 헌신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신념으로 표시됩니다. 반대로 차세대 헌신은 개인의 신념이 다 떨어지면 단절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 1세 교인들은 공동체의 즐거움을 위해 크리스마스 공연과 음식을 준비합니다. 2세도 공연을 해야만 한다고 듣습니다. 2세들은 자신들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키지 않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들의 헌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다고 자원하지 않은 공연을 싫다고 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MENTORSHIP

한국어에는 "mentorship"에 제대로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멘토링의 개념은 한국 사회에 전해졌지만 여전히 서구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어로 멘토링을 하는 가장 가까운 것은 '조언 주는 사람'을 뜻하는 '조언자' 또는 '선생'을 뜻하는 '스승'입니다. 이 단어들은 학습의 맥락 내에서 깊은 관계를 뜻합니다. 한 목사님은 서구적인 일대일 멘토링 모델을 추구하지 않았습다. 이 목사님은 멘토링에 대한 생각 자체가 서구적이라고 지적했고, 한국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주의 개념 대신에 공동체 안에서 배움을 얻어가는 중요성을 옹호했습니다.

멘토링의 개념은 서구적입니다. 이 단어는 나이 든 "mentor"가 젊은 제자와 관계를 맺고, 지혜를 나누고, 젊은 제자가 따르는 관계를 뜻합니다. 차세대 한인동포들은 미국 문화 가운데 멘토링 관계를 많이 봐왔고 이를 원합니다.

특히 2세 기독교인들이 멘토링을 받을 때, 멘토링은 2세가 느끼는 소속감을 더해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1세대는 개인 멘토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을 때까지 차세대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멘토링을 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BIBLIOGRAPHY

- Kim, Terence. *A Letter to the Korean American Church: Reconciling the Gap Betwee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Koreans*. Afton, VA: ANM Publishers, 2019.
- Kim, Sharon. *A Faith of Our Own : Second-Generation Spirituality in Korean American Churche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 Kim, Simon C. *Memory and Honor : Cultural and Generational Ministry with Korean American Communities*.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13.
- Park, Andrew Sung. *The Wounded Heart of God: The Asian Concept of Han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3.
- Park, Andrew Sung. *From Hurt to Healing: A Theology of the Wounde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4.
- Min, Pyong Gap. "Korea." In *The New Americans: A Guide to Immigration Since 1965*, edited by Mary C. Waters and Reed Ueda, 491-501.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Miyung Joo, Rachael, and Sang-Hee Lee, Shelley, eds. *A Companion to Korean American Studies*. Boston: BRILL, 2018.
- Han, Sang Sin. *Han-In-Chong-Hui 40Nyun: Hoekowa Junmang*. Seoul, Korea: Qumran Publisher, 2016.
- Hong, Suk Hwan. *Mideumei Yulmae*. Edited by In Kyung Choi. 5. Vol. 5. Gardena, CA: Printron Printing, Inc., 2007.
- Kim, Yong Hwan. *Mideumei Yulmae*. Edited by Eun Sang Yoon. 6. Vol. 6. Boston, MA: AlphaGraphics, 2012.
- Kwon, Ho-Youn, Kwang Chung Kim, and R. Stephen Warner. *Korean Americans and Their Religions*.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1.
- Kwon, Jin Tae. *A History of St. John's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Seoul, Korea: Boicesa, 2004.
- Lee, Yong Gil. *A 60-Year Pilgrimage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1953-2013*. Brookline, MA: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2015.
- Lim, Lisa, and Dong Keun Lee. *A 30 Year Story of Greenland Church*. Edited by Hae In Hwang. Greenland, NH: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2013.
- Seale, Clive, ed. *Researching Society and Culture*.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8.



마지막 메모

저는 현재 히브리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인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전인 BDAG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단어가 '견딜 때보다 더 오래 머물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저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히브리서 12:2)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독자들에게 명합니다. 이 '견디다'라는 단어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2세가 한인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너무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하지만 이 아픔은 다쳐서의 아픔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중요한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생기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하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가장 큰 생각은 언제나 "왜, 어떻게 이걸 지금 알지?" 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번 HANA를 통해 여러분이 한국교회 안에 다른 세대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더 깊게 실감하셨길 바랍니다. 더 오래 머물고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뜨도록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쌓은 이 인내가 매우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심에 외로움을 느끼면 옆을 쳐다보십시오. 저희도 옆에

있겠습니다.

두 세대가 1900년도 부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1세대를 공경하며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를 물려 받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대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한인 교회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에도 한인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진리를 믿길 바랍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1세대와 2세대 모두는 이에 위한, 개인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 부모, 자식, 그리고 교인으로써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ARISE MINISTRIES

PO Box 2112
Peabody, MA 01960

Email

jane@ariseyouth.org

Website

arisemin.org/hana